

2주차

조선 초기 신분제도의 운영

김 성 우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학습내용

01. 기본 방향: 제민정책(齊民政策)

- 조선왕조의 국정 방향
- ‘국가적 평등사회’의 전제: 제민정책(齊民政策)

02. 국가운영의 골격: 양천제(良賤制)

- 전체 인민의 이분화(二分化)
- 조선 초기 사회의 개방성

03. 국가의 작동 방식

- 조선왕조를 작동하는 세 가지 중심축:
국역체제, 양천제, 제민정책
- 조선왕조의 운행:
부병제(府兵制)와 과전법(科田法)

04. 운영의 모순: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 문제

- 조선 초기 국가 공인 지배 신분층: 사족(士族)
- 세습성의 강화와 사족의 양반화(兩班化)

05.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상호 간의 갈등

- 양천제와 고려 후기-조선 초기의 사회경제 상황
-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양자의 조정
- 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
- 양천제의 한계: 천인층(賤人層)의 광범위한 존속

5차시

조선왕조의 국가 운영 기조 : 국역체제(國役體制)

학습목표

- 양천제와 고려 후기, 조선 초기의 사회 경제 상황을 살펴본다.
-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 간의 조정을 설명할 수 있다.
- 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을 살펴본다.
- 양천제의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양천제와 고려 후기-조선 초기의 사회경제 상황
-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양자의 조정
- 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
- 양천제의 한계: 천인층(賤人層)의 광범위한 존속

양천제와 고려 후기- 조선 초기의 사회경제 상황

양천제가 미치는 영역

- 양천제는 조선왕조 개창 이후 국가 운영 시스템의 일부였음
- 전체 인민은 국역체제의 작동 과정에서 양·천 신분으로 나뉨

양천제가 미치는 영역

- 국역체제의 영역을 벗어나는 경우,
국가는 굳이 인민을 양천제로 얹어매고 집행할 필요가 없었음
- **양천제: 인민을 국역체제에 동원하는 국가적 인민 편제 방식**

고려 후기-조선 초기의 사회경제 상황

- 왕실과 권문세족, 그리고 수도 개경을 중심의 지배층
→ 강고한 권력 행사
- 지주제 발달 + 노비들이 광범위하게 존재

고려 후기-조선 초기의 사회경제 상황

- 혈통적 귀천 의식,
사족(士族)·상인(常人) 간 차별 의식이 강함

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양자의 조정

국역체제 바깥(外) 지역

- 사회적·관습적 영역이 강함
- 사족(士族)·상인(常人) 관계의 위력이 강함
- 사회적 관념: 양천제의 시행 과정을 왜곡, 방해 함

조선 초기의 사회의 이중구조

- 종래의 사족·상인 관계의 ‘사회통념적 신분구조’가 작용함
- 그 위에 국역체제가 작동하는 영역에서는 양천제가 자리함

조선 초기 이중적 구조의 변화

- 건국초기:

양천제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, 국가의 신분 규정력

→ 사회통념상의 신분 구조의 위력을 압도

조선 초기 이중적 구조의 변화

- 15세기 후반 이후:
국가의 규정력이 점차 약화되어 가면서,
양천제의 영향력은 15세기 후반 이후 점차 감소

조선 초기 이중적 구조의 변화

- 16세기 전반기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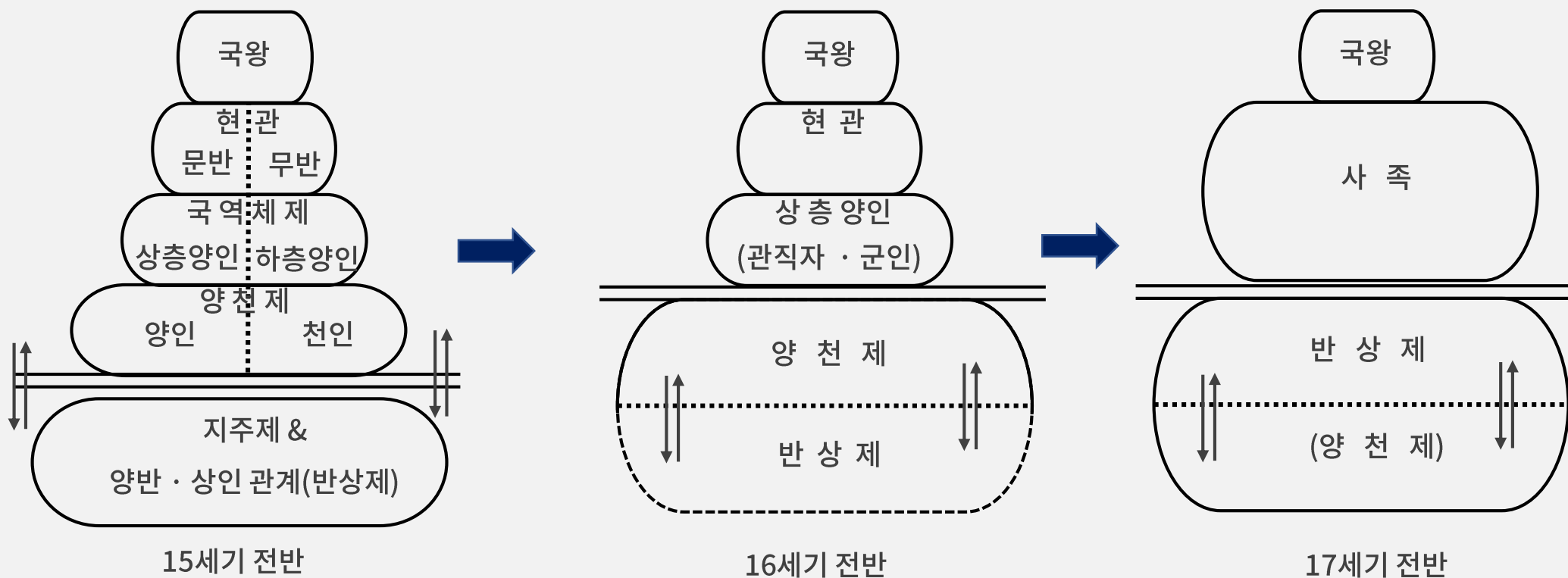
‘연산군의 폭정’을 겪은 이후

중앙권력의 와해, 국가적 신분 규정력이 급격하게 약화

- 16세기 중·후반:

사회통념상의 신분 규범이 양천제 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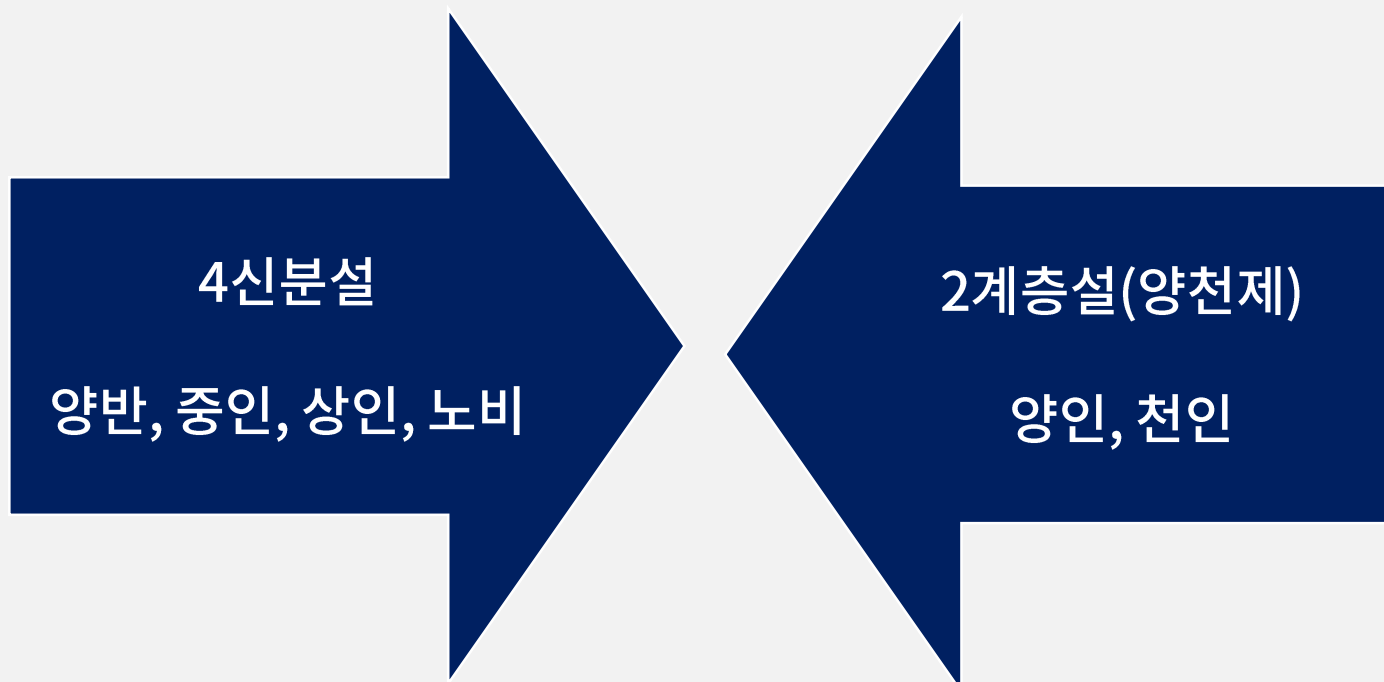
양천제의 적용 범위와 축소 과정



[출처01] 김성우, 『조선중기 국가와 사족』, 역사비평사, 2001

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

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 1980년대



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의 문제점

- 이성무: 조선 초기는 4신분제 사회
- 한영우: 조선 초기는 양천제만 존재
 - 사회 통념상의 신분 관념과 국역체제의 운영원리로서의 양천제를 분리하여 인식하지 못함

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의 문제점

- 4신분 - 양천제 : 서로 다른 영역의 신분 구조
→ 15세기 후반-16세기 초반: 점차 절충됨

조선 초기 신분제 논쟁의 문제점

- 반상제(班常制): 사회통념적 신분 구조

양천제의 한계: 천인층(賤人層)의 광범위한 존속

양천제의 한계

- 천인층(賤人層)이 광범위하게 존재함
- 국가의 인민 편제는 양인층에만 초점을 맞춤

천인층(賤人層)

- 국역체제에 포섭되지 않은 계층
- 국가 기관이나 양인층에게 예속된 매매, 증여, 상속의 대상

천인층(賤人層)

- ‘노비’로 규정: 노예적 속성이 강함
- 전체 인구의 30~50%의 비중을 차지

한국의 노비에 대한 평가

- 제임스 팔레: ‘서구의 노예와 같다’고 평가
- 이영훈: ‘서구의 노예와 다르다’고 평가

천인층(賤人層)

- 최근: ‘노비는 노예적 속성이 강함’으로 인정
- 노비: 전체 인구의 30~50% 차지

조선왕조의 태생적 한계

- 인신적 신분적 속성이 있는 ‘전근대 농업국가’에서 출발
 - 제민정책, 양천제를 강조해도 신분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음
- 16~17세기에 신분제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

마무리

- 사회적 통념이 국역체제를 변질시키는 과정
- 조선 왕조의 국역체제의 한계

마무리

- 기본 방향: 제민정책(齊民政策)
- 국가운영의 골격: 양천제(良賤制)
- 국가의 작동 방식
- 운영의 모순: 세습 권력자에 대한 예우 문제
- 국역체제와 사회적 통념, 상호 간의 갈등

마무리

- 조선 초기 양천제를 기반으로 한 제민 정책 지향
→ 양천제의 한계

다음 차시에서는

- 국역체제의 붕괴와 양천제가 동요하는 과정

SOURCES

[출처01] 김성우, 『조선중기 국가와 사족』, 역사비평사, 2001

REFERENCE

김성우, 「조선시대의 신분구조, 변화, 그리고 전망」, 『동아시아 근세사회의 비교』 (한국고문서학회 엮음, 혜안, 2006), 182-189쪽.



YONSEI
UNIVERSITY
MIRAE CAMPUS

K-MOC

기획·조정

이준희·정다영

교안
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
김록현